

# 국적 변경·교포 선수들, 모국 발목잡나

중국 귀화 임효준·한국계 클로이 김 올림픽 출전  
남자 쇼트트랙·여자 스노보드서 한국과 메달 경쟁  
스피드 스케이팅 김민석도 헝가리 귀화해 첫 출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엔 많은 한국계 선수들이 출전한다. 낯익은 귀화 선수는 물론,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포 선수가 한국 대표팀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선수는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린샤오원(한국명 임효준)이다. 린샤오원은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땀으나 2019년 6월 국가대표 훈련 중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쳤다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여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중국 귀화를 택했다.

린샤오원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꾸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고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 복귀하지 못하다가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

맹(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는 린샤오원이 귀화 후 출전하는 첫 올림픽이다. 린샤오원은 단거리 종목에서 강세를 보인다. 그는 2025-2026시즌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헝가리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동

메달을 차지했던 한국 빙속 중장거리 간판이었다.

그는 2022년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한체육회로부터 2년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내에서 훈련하기 어려웠던 김민석은 2024년 헝가리 빙상 대표팀 한국인 지도자인 이철원 코치로부터 귀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했다.

김민석은 2025-2026시즌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한 차례 톱10에 들었을 뿐, 메달 획득엔 실패했다.

김민석과 함께 헝가리로 귀화한 쇼트트랙 문원준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계 교포 선수들도 대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선다.

간판은 슈퍼스타 클로이 김(미국)이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낸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스노보드 최초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공교롭게도 클로이 김의 최대 적은 한국의 신성 최가운(세화여고)이다. 최가운은 2025-20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하며 클로이 김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엔 한국계 선수가 3명이나 포진했다. 연합뉴스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한상민, 스키 대회전 5년 연속 '정상'

슈퍼대회전도 금... 2관왕

제주 한상민이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스키 대회전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남자 대회전 SITTING(선수부) 경기에서 1분31초7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며 5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한상민은 이어 이번 대회 시범종목으로 열린 슈퍼대회전 SITTING(선수부) 경기에서도 47초45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에 올랐다.

한상민은 제주선수단으로 활약

한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알파인스키 회전과 대회전에서 4년 연속 2관왕을 차지했지만 올해 회전 SITTING(선수부)에서 1분46초47의 기록으로 은메달에 머물렀다.

휠체어농구 정승·김동우·이준협과 론볼의 고숙미 선수로 구성된 휠체어컬링은 2인조 WC-E(선수부)와 4인조 WC-E(선수부)에 출전했지만 각각 전복과 중남에 패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린 이번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 휠체어컬링과 알파인스키 두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이도류' 오타니, WBC 지명타자로만 출전

2023년 대회선 투수로 2승·7경기 타율 0.435 기록

지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야구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31)가 이번 WBC는 지명타자로만 출전한다.

오타니의 소속팀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1일(한국시간) 오타니가 다음 달 개막하는 WBC에서 마운드에 오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타니는 2023년 WBC에서 투수로 3경기에 등판해 2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0.72로 눈부신 호투를 펼쳐 우승을 견인했다.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마이크 트

라우트(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경기를 매조진 장면은 지난 대회 하이라이트였다.

그러나 오타니는 그해 MLB 정규시즌에서는 23경기 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를 남긴 뒤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2023 WBC에서 타자로는 7경기에 나와 타율 0.435(23타수 10안타), 1홈런, 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345로 활약했던 오타니는 이번 WBC에서는 타격에 집중한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MLB 정규시즌 개막에 맞춰 투수로 등판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중견수 이정후 2026시즌 우익수로 뛴다

MLB 샌프란시스코 구상중인 외야 포지션 공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중견수 해리스 베이더(31)를 영입하면서 이정후(27·사진)의 보직 변경을 공식발표했다.

MLB닷컴은 1일(한국시간) "지난 두 시즌 새로운 무대(MLB)에 적응하는 시간을 보냈던 이정후가 새 시즌 우익수 이동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마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버스터 포지 샌프란시스코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은 현지 매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정후가 우익수(코너 외야)로 이동하고, 베이더가 중견수를 맡게 될 것"이라고 구상을 공개했다.

포지 사장은 "이정후는 포지션 변경에 대해 훌륭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정후가 여전히 중견수 훈련을 병행할 가능성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리의 기본 계획은 베이더를 중견수로 기용하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팀의 고질적인 약점인 외야 수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샌프란시스코는 2025시즌 외야 수비 지표인 평균 대비 아웃 기여도(OAA) -18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반면 베이더는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 전문가다.

2021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외야수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으며, 2018년 이후 메이저리그 외야수 중 압도적으로 높은 OAA 76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 승진

서기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정식**  
(부: 박봉찬 · 모: 교육자)

### 영전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양주필**  
(부: 양창심 · 모: 김옥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승진과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장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중앙대법대 제주동문회

회장 **고석상**(81학번) 외 회원 일동

### 당선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장



**박종철**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심재활노인복지센터

대표 **고성범** 외 임직원 일동

### 임명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트레이닝 코치



**김태훈**  
신광초·제주제일중·제주고·경성대 졸업  
(부: 김형길 · 모: 강영순)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트레이닝 코치 임명을 축하합니다.

## 아버지 형제 일동

(형찬·형식·형식)